

일본의 국도변 직거래 장터

- 미치노에키(이타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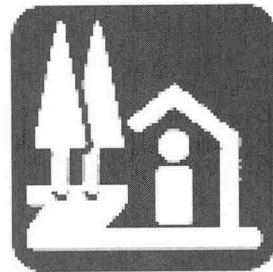
최동주 박사
한국농촌공사

1. 현황

- 장거리운전이 증가하고, 여성이나 고령자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음. 도로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도로에서도 안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휴식을 위한 체류공간이 요구됨.
- 또한 사람들의 가치관의 다양화에 의해 개성적이고 재미있는 공간을 희망하고 이들 휴게시설에는 휴게인근지역의 문화, 역사, 명소, 특산물 등의 정보를 활용해 다양하고 개성 풍부한 서비스제공이 가능함.
- 더욱이 이들 휴게시설이 개성 풍부한 활기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 지역의 중심을 형성해서 활력 있는 지역 만들거나 도로를 매개로한 지역연계가 촉진되는 효과도 기대됨.
- 이러한 배경으로서 국도이용자를 위한 「휴게기능」 도로이용자나 地域주민을 위한 「정보발신

기능」, 그리고 「미치노에키(道の驛)」을 계기로 지역과 지역이 손을 잡고 활력 있는 지역 만들기를 함께 추진하기 위한 「지역의 연계기능」 3가지의 기능 함께 갖는 휴게시설 「미치노에키(道の驛)」가 탄생했음.

- 시설 위치
 - 휴게시설로써 이용하기 쉽게 「미치노에키(道の驛)」 상호 기능분담의 관점에서 적절한 위치에 설치.
- 제공서비스
 - 주차장, 화장실, 전화는 24시간 이용가능.
 - 안내인 있어, 친절하게 정보를 제공.
- 시설구성
 - 휴게목적의 이용자가 무료로 이용 가능한 충분한 면적의 주차장.
 - 청결한 화장실.
 - 도로나 지역정보를 제공하는 시설.
 - 다양한 서비스시설(지역특산물 판매장, 식당,



▲ 미치노 에키 심볼마크

- 가공 체험장).
- 주요한 보행통로는 배리어후리(휠체어 이용 가능)화.
- 지역시설의 설치자
 - 市町村 또는 市町村 대신 자격을 취득한 공적인 단체.
- 배려사항
 - 연소자, 고령자, 장애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하기 쉽도록 배려.
 - 경관에 충분히 배려하고, 지역의 빼어난 경관을 해치지 않는 시설계획.
- 일본 내에 850개가 있으며, 국토건설성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미치노에끼라는 명칭과 logo를 사용할 수 있음.
 - 화장실, 주차장, 전화 24시간 개방, 장애인 시설 구비 등.

2. 미치노에키 이타코

- 설립방식
 - 총 12억엔 소요되었으며 정부가 50% 보조, 50% 용자 지원.
 - 제3섹터 방식으로 설립, 자본금 2,000만엔 중 1,300만엔은 이타코시가 출자.
- 운영현황
 - 2002월드컵경기장이 인근 카사마에 있어 첫 해 수익목표 3억엔이었으나, 505억엔을 초과 달성했으며, 2004년 6억엔, 2005년 7억엔 전망.
 - 전국에서 가장 늦게 시작하였으나 전국 1위의 수익률을 보임.
 - 품목별 수익률은 농산물 판매 10%, 선물코너 30%, 과자, 아이스크림, 주먹밥(오니기리) 등 60%를 차지.

- 이 지역에서만 살 수 있는 가공품을 만들어 순익의 30%를 내게 되었으며, 이중 2천만엔을 이타코시에 기부해 지역주민을 위해 이용하도록 함.
- 시설현황
 - 전체부지는 4ha이며, 매장 2ha.
 - 주차장 : 보통차 157대, 대형차 17대, 장애인차용 3대, 합계 177대.
 - 화장실 : 남 13개(장애인차용 1개 포함), 여 14개(장애인차용 1개 포함) 합계 27개.
 - 정보동 : 09:00~19:00

제공 정보내용

- ① 도로정보 및 인근의 미치노에키 정보, 교통정보, 재해정보, 공사규제정보, 인근의 「미치노에키」 정보.
- ② 관광정보 : 주변의 관광정보, 숙박시설 정보.
- ③ 의료정보 : 의료기관의 전화번호 등.
- ④ 기타 정보 : 기상정보 등.
 - 베이커리&카페레스토랑 「리코르드」 : 기분은 유럽! 걷는 것만으로 유럽의 거리를 산책하는 기분을 낼 수 있음. 매일 구운 빵을 판매.
 - 선물가게 유택관 「무지개 공방」과 「이타코숍」 : 선물용품이나 캐릭터 상품이 가득하며, 맛 자랑은 「무지개 공방」 특제 제랄드나 요구르트, 주먹밥, 구이 등이 있으며 도쿄로부터 일부러 사러 오는 사람이 있는 만큼 유명함.
 - 신선시장 「이타로」 : 신선한 아침야채가 평판이 좋고,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직매. 판매장에는 생산자로부터의 한마디 메시지가 표시되어 있으며, 요리 방법이나 먹는 방법, 보존 방법 등의 어드바이스를 들을 수 있음.

- 식당 : 오후쿠로亭(특산물을 이용한 어머니의 손맛 식당) 계절의 요리제공.
- 빛의 광장 : 세련된 유리지붕이 표적인 모두의 광장으로써 계절의 축제나 어트랙션, 전시 등.
- 허브&플라워 숍 : 세련된 헤이안 시대 시장의 일종으로써 계절의 꽃, 허브 및 화목이 가득.
- 오픈 카페 : 유럽 기분만점의 오픈스페이스로 각 코너에서 구입한 드링크와 음식을 이쪽에서 즐길 수 있음.
- 미풍의 공원 : 외부의 산책 공원.

3. 주요 사항

- 미찌노에끼를 통한 산지직거래 판매액이 늘어나고 있어, 지자체에서 미찌노에끼 사업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실지로 많이 늘어난 상태임.
- 그러나 매장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품목을 갖추려다보니 특색이 없어지고 있어, 최근에는 매장별 특색을 살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이 지역은 동경 은퇴자가 많은 지역으로서 소비자층이 두터움.
- 이들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원하며, 미찌노에끼에서는 소비자와의 산지직거래를 하고 있어 신선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의 욕구와 맞아 떨어짐.
- 미찌노에끼 운영 노하우
 - 100엔짜리 채소를 판매하는데, 이는 전체 매출의 30%에 불과하나 이것이 고객을 끌어들이는 매력요인이 되어 고가의 선물코

너 등도 운영 가능.

- 다양한 event 개최로 홍보 및 고객 확보 추진.
- 직판농가 관리
 - 직판농가는 시의 농정과에 90명이 등록되어 직판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농약사용과 생산이력 등을 관리.
 - 출하는 09:00 이전에 농가가 가져와 진열하고 19:00 이후에 남은 물건을 회수함으로써 하룻밤을 재우는 일이 없음.
 - 수수료는 15%이며 성과금은 직판위원회에 2억엔의 목표액 중 2백만엔을 주며 농가에도 0.2%를 환원함.

4. 시사점

- 미찌노에끼 명칭과 logo 사용의 엄격한 규제.
 - 국토건설성에서 제시하는 조건 충족해야 사용가능.
 - 화장실, 주차장, 전화의 24시간 개방, 장애인 시설 구비 등.
- 지역활성화에 미치는 역할.
 - 지역주민의 고용에 따른 일거리 창출.
 - 지역 농산물 및 가공품 판매의 장소 제공.
 -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에 환수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에 기여.
- 점차 늘어나는 미찌노에끼의 자구노력.
 - 지역만이 갖춘 매장의 테마와 특성을 살리려는 노력.
 -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산지직거래와 함께 편안한 휴식, 간단한 업무, 관광·도로정보, 선물구입 등 다양한 편의 제공.
 - 다양한 event를 개최하여 홍보 및 고객 유치. ㉟

5. 내외부 전경



▲ 진입광장인 빛의 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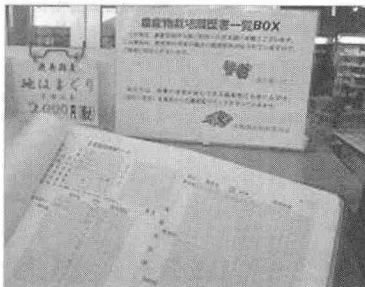
▲ 정보동



▲ 신선시장 이타로



▲ 진열된 농특산물



▲ 농산물 재배이력의 비치



▲ 생산자의 이름과 사진을 게시



▲ 선물가게 우로오이관



▲ 허브&플라워 숍



▲ 지역생산 요구르트 판매



▲ 한국산 김치도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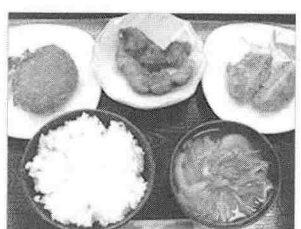
▲ 오픈 카페



▲ 미풍의 공원



▲ 오후쿠로亭 : 식당



▲ 식단